"법당갔다고 반성문 쓰라니…"

특수전학교 종교편향…기무사 사실 확인
초파일 앞두고 법당 인근에 인분 뿌리기도

특전사 예하 특수전학교(학교장 박희만 대령)에서 법당주변에 인분을 대량 뿌리고 법회에 참여하려는 하사관후보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종교편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있다.

이에대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11일 포교부장 원혜스님이 부대를 방문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박동진법사가 경위를 설명하고 조사를 의뢰한 기무사도 자체조사결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확인해 육군본부에 보고한 상태다.

육군 특수전학교 법회를 지원하고 있는 능인선원 21기동창회 군포교부에 따르면 특수전학교의 이진규 하교교육대장이 하후생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고 법당에 갔다는 이유로 3~4일에 걸쳐 반성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하교대장이 장병카드 작성시에 무교는 기독교로 적으라고 강요하고 '잘생각하고 신중히 하라'며 2~3회에 걸쳐 서류를 반려했다. 이후 이 카드에 따라 병력통제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일부 근무자들은 법당 참여인원을 교회로 오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부대는 인성교육을 정훈장교가 아닌 목사가 교회에서 실시해온 것은 물론 불자들은 별도로 모아 교육이 끝난후 불자하후생들에게 '끝까지 불교를 고집하느냐'고 억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단주를 차면 벌점을 주는 것은 물론 법회참석 불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니 법당에 간다'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며 최초법회 참석자 30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회에 가도록 유도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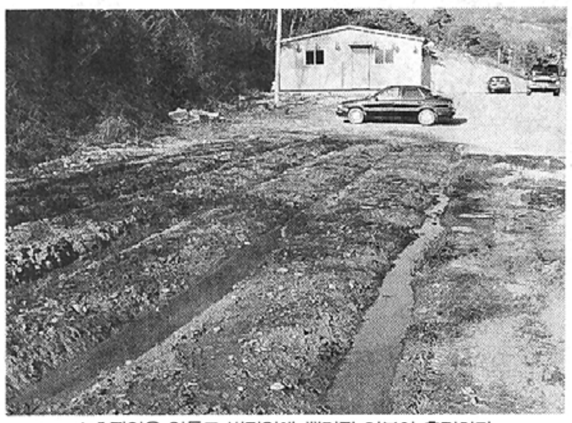
또 5월1일 초파일을 앞두고 분뇨차를 동원하여 법당 인근 텃밭에 인분을 흥건히 뿌려 악취가 진동하게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한편 조계종은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 유독 불교에 대한 침해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중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방부에 촉구하고 종단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능인선원 한 관계자는 9일 해당 군부대를 방문하여 교회에서 군관계자들과 면담했으나 사과는 커녕 군법사와 법당을 찾는 불자들이 일을 확대했다며 '군법사를 전출보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모든 사건의 전말을 부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10일 특수전학교장은 교계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육군본부 보도과에 사전 취재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김원우 기자〉



◇초파일을 앞두고 법당앞에 뿌려진 인분이 흥건하다.

복지부 장례식장 건립 융자신청 24곳 중
교계 동국대 경주병원 '유일'

보건복지부의 장례식장 융자지침 발표에 따라 전국 24곳의 병원과 개인, 법인에서 장례식장 건립 융자신청을 한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동국대학교 부속 경주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5백99평의 설치면적 규모에 빈소 7개, 안치소·염습실, 예식실, 장의예식판매전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장례식장을 건립키로 하고 4억원의 융자금을 신청했다.

한편 복지부에 융자신청을 한 24곳 중 종교계에서는 동국대 부속 경주병원 외에 천주교 옥천성모병원,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에서 신청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0억의 예산을 10개소에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20억원을 늘인 7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동국대 부속 경주병원 기획감사실 지영환씨는 "장례식장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전환 방법모색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교류로 사업자들이 융자지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족 삶의 질 우선 통일후 복지모형 필요"
조계종 복지포럼서 제기

다가오는 통일시대에는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완벽한 사회·문화통합'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13일 개최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와 통일이후 통합정책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회복지포럼에서 발표됐다.

이건식씨(前 국회비서관)는 주제발표에서 통일한국의 복지모형은 민족사적 당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하에 단계적·제도적으로 준비된 국민경제의 안녕과 번영을 꾀하는 기조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식량 전달
불교추진위, 1차분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인 식량이 6월내 북한에 전달된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상인추진위원장 지선)는 11일 각 단체 실무자 연석회의를 열고 이달중에 1차분 식량을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키로 결의했다.

5월6일 발족 이후 현재 2억6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한 불교추진위는 이번 회의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식량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북동포돕기 전국협의회 26일 발족

종교계 재야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국규모의 북한동포돕기협의체가 발족한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를 비롯 기독교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참여민주시민연대 등 10여곳은 11일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협의회'구성에 합의하고 26일 발족키로 했다.

전국협의회 구성을 논의해온 각 단체 실무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금운동이 전국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효율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 & 뉴스

인천 청교련쉼터 예산 지원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 청소년쉼터에 7일 인천시가 예산 7천만원을 지급했다. 〈관련기사 130호 19면〉

그러나 이 예산은 당초 1억원에서 3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운영상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앙신도회 운영회의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10일 예정했던 운영회의를 24일 열기로 했다. 중앙신도회 백영식 사무부총장은 "중앙종회와 운영회의 일자가 맞물려 부득히 연기하자는 총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신도회는 운영회의에서 부회장단과 이사를 선임하고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한다.

대불청 전국청년대회

창립 77년째를 맞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21~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6차 전국불교청년대회(준비위원장 최윤선)를 개최한다.

'환경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청년불자 하나됨을 위해'라는 주제로 1천5백여명의 전국 회원이 참여, 민족문화지킴이와 호법단 발대식을 갖는다.

청소년지도자 수련대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부설 다보수련원은 21~22일 불교청소년지도자 70여명을 초청 '불교청소년캠프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청소년 하계캠프를 준비하는 청소년단체의 지도자에게 캠프운영을 실무교육한다. 참가비는 무료. (02) 719-7789

신도단체협 북돕기운동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회장 김용직 관음종 신도회장)는 10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태고종 진각종 등 22개 종단 신도회대표 50여명이 참석, 회장단·운영위원 합동회의를 열고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불방사태·토지처분특위 구성
조계종종회 추경예산 103억여원 통과

조계종 제127회 임시중앙종회(의장 설정)가 9일부터 총무원청사 1층회관에서 열려 96년 결산검사를 포함 14개 안건을 처리하고 5일회기를 하루 앞당겨 12일 폐회됐다.

재적의원 81명중 60명이 참석한 이번 종회는 불교방송사태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정대)구성, 96년 종단 예산 1백3억9천34만원중 세입 1백억3천9백69만888원(96.62%), 세출 94억1천9백56만8천425원(90.65%), 차기이월 6억2천12만2천4백63원을 비롯 추가경정예산 1백3억9천34만원을 통과시켰다.

종회에서는 북돕기 모금동참과 바미얀대불 보존 그리고 갑사 토지수용 반대,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결의문 등 8개항의 청원 및 결의문이 채택됐다. 또 재무부 종무보고에서 제기된 봉선사 말사 흥룡사 토지처분의 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키로 하고 토지처분 특위를 구성했다. 각종위원회 보궐선출, 불교중앙교원 이사 및 감사 선출, 승가학원 이사후보 동의 건도 처리했다. 반면 직영사찰운영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됐다.

복지시설 설립 '신고제'로
개정안 국회 통과될듯

종교단체나 사찰 스님도 양로원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대와 생활환경개선을 골자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53명이 참여하는 국회복지포럼(회장 신기하 국민회의 의원)이 주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법인없이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공청회에서는 대표의 자격폐지, 시설의 설립시 신고제로 개편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표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상시 10인 이하만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시설의 설립토록 하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의 권익옹호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사회복지사업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누리포교회 장애인 권익 '앞장'
7월5일 창립 직업훈련등 재활교육 중점 추진

교계 장애인 재활과 교육 권익사업을 벌일 대한불교 한누리포교회(창립준비위원장 박인철)가 7월 5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창립한다. 한누리포교회는 석주스님을 증명으로 월주 인곡 운덕스님등 각 종단 지도자를 비롯 성타 법륜 덕신 보각스님등 장애인 포교활동을 하는 스님과 전창렬변호사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 명호근 쌍용증권사장 성태용 건국대교수등 교계인사들이 참여한다.

한누리포교회 창립준비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내용은 △교육사업 △직업훈련 및 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 권익보호사업 △자료조사 연구 △장학사업 △장애인 수련장 운영 △신행지원활동 △국제교류 등이다.

이와함께 한누리포교회는 장애인 포교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장애인 포교 담당자를 양성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포교,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나 녹음도서를 보급하는 문서포교, 의료 동행 생활지원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7월 개강예정인 한누리포교대학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포교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3개월 과정으로 개설된다.

목탁소리
전·노씨 사면운동

김재경 〈취재1부 기자〉

최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조계사와 백담사, 총화종 등 이 인간방생의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면운동이 마치 교계 지도자나 사찰에 의해 전폭적으로 주도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일간지들도 한결같이 원로스님들과 유력사찰을 거론하며 범불교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조계종 종회의원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사면청원서에 서명하는 등 친분이 있던 스님들과 인연있는 사찰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나 해인사 봉은사 구룡사 등 유명사찰이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일부 전·노씨 측근이 사찰주변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일간지 보도내용은 확인없이 전씨 측근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전씨 측근이 사면운동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서명운동이 마치 범불교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칫 불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당사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실제 중앙승가대의 경우 학교차원의 서명운동으로 잘못 알려져 총장이 사과하고 학생회장이 퇴진하는 사건도 있었다.

'사면'은 여론조성이 아닌 국민의 자연스런 정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일부 스님·불자들이 순수한 불심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면운동을 정치적으로 오도하는 것은 도움을 주려는 불교계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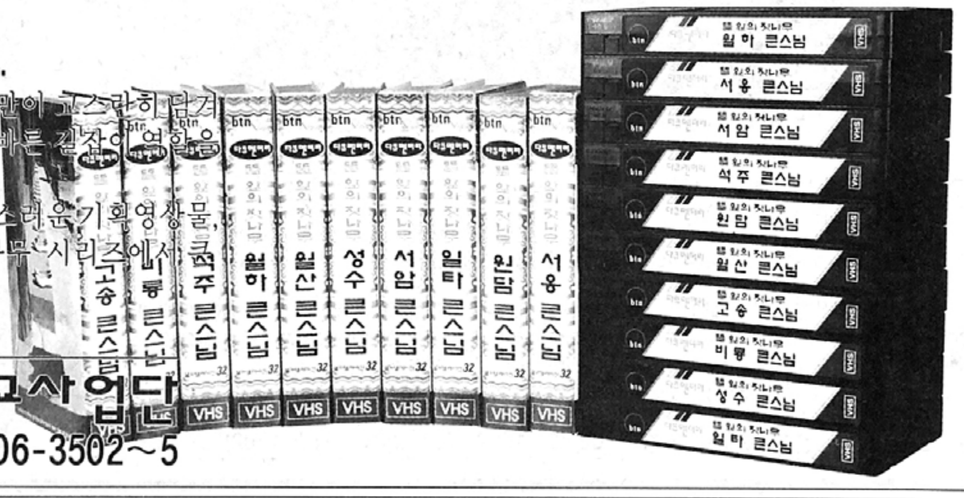
격조높은 작품·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큰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btn
지혜의 빛·자비의 샘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①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성찰의 소리

②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불자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량한 삶을 조명

③ 월하 큰스님 (조계종 종정)
탤런트 고두심 불자가 통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④ 석주 큰스님 (칠보사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불자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⑤ 월산 큰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취재

⑥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승가대 송찬우교수와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⑦ 고송 큰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탤런트 엄앵란 불자에게 설파

⑧ 비룡 큰스님 (월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⑨ 원담 큰스님 (덕숭총림 방장)
판화가 황남채 불자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편지를 전함.

⑩ 월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대인의 가슴에 촉촉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임기준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